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카타르 도하(Doha)신항 개발 프로젝트 2단계 입찰 등록 마감-----	2
□ 친저우항,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물류허브 건설 추진-----	3
□ 덴마크 DFDS사, Rotterdam항의 Ro-Ro 터미널 매각-----	4
□ 라틴아메리카 11개국 교통부 장관회의 개최-----	5

-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책임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카타르 도하(Doha)신항 개발 프로젝트 2단계 입찰 등록 마감

- 도하신항운영위원회(The New Doha Port Steering Committee)가 발주한 도하신항 개발 프로젝트 2단계 공사에 대한 입찰 등록이 지난 6월 12일 마감됨
 - 2단계 공사는 컨테이너 터미널(약 75만 m^2), 부대시설, 항내 도로(약 17km), 외부 진입로, 고속도로 교차점 등의 건설을 포함
 - 1단계 공사 수주업체인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ina Harbour Engineering Co., Ltd.)을 포함하여 9개사가 입찰 등록 하였으며, 계약은 2011년 3분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
- 카타르 정부의 산업개발정책으로 도하시 중심에 위치한 기존 도하항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 개발에도 한계가 있음
- 도하신항은 도하 남쪽에서 약 30km 떨어진 메사이드(Mesaieed) 북측 및 알 와크라(Al Wakrah) 남측 해안에 위치하며, 총 70억 달러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됨
 - 2030년까지 연간 6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수심 17m의 항만을 건설하며, 신항은 8.5km의 연육교를 통해 도하 본토와 연결됨
 - 1단계 공사의 수주금액은 약 8.8억 달러로 항만 준설(수심 17m), 내항 방파제(2.7km), 안벽(8km) 등의 건설을 포함하며, 4~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3단계 공사는 연간 2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과 선석, 행정 및 비관세구역, 예인선 및 도선 구역을 포함함

<Doha 위치>



<Doha신항 조감도>



자료: www.cargosystemes.net, 2011.06.21. / www.newdohaport.com.qa.

김홍매 책임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친저우항,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물류허브 건설 추진**

- 광시성(廣西省)에 위치한 친저우항(欽州港)은 중국과 아세안국가를 연결하는 중심항만임
- 친저우시는 광시북부만경제구(廣西北部灣經濟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임해공업도시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양측을 연결하는 물류통로 역할 수행
- 2011년 1~4월 항만물동량은 1,403만 톤으로, 동기대비 52.8% 성장하였고, 컨테이너물동량은 9.5만 TEU로 동기대비 17.6% 증가하였음

- 친저우 보세항구는 2011년 2월 16일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6번째 보세항구이자 서부지역 최초의 보세항구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처리기능을 갖춘 보세항구임
- 동서부를 연결하는 남북직항항로(南北直航航線), 베트남해방대외무역컨테이너항로(越南海防外外貿集裝箱航線)를 개설하였으며, 셔틀서비스를 운영하여 운송 효율 강화, 물류원가 절감, 운송시간 단축 등 항만 경쟁력 강화
- "12.5" 기간 동안 목표는 수출입자동차 30만대 처리로 이를 위해 자동차 보세전시, 거래, 차량검사와 수리기능을 갖추어 자동차물류 전문터미널로 거듭날 계획임

- 향후 친저우항은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물류허브 역할 담당
- 국무원은 친저우항의 대외개방 확대를 정식으로 비준하여 총 28km에 달하는 해안선과 98개 선석의 개방 지정
- 중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친저우항의 중요성 증가
- 광시성 정부는 보세항구 개발을 통해 광시성의 경제개발과 더불어 향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항 및 국제해상운송센터로 도약할 계획임

자료: www.chinaports.org, 2011.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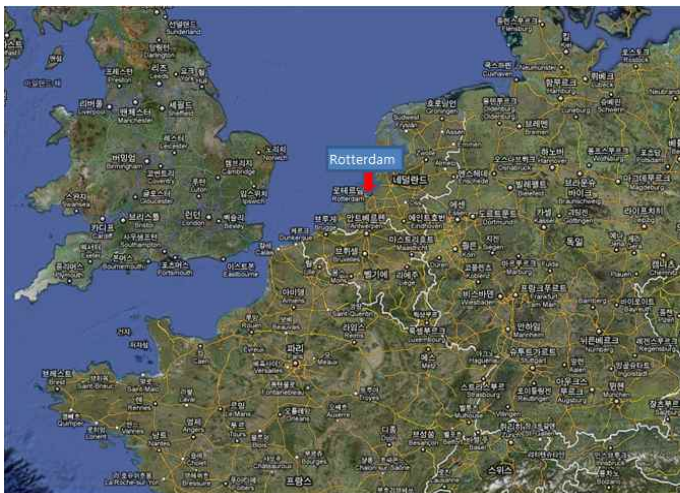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전문연구원(☎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덴마크 DFDS사, Rotterdam항의 Ro-Ro 터미널 매각

- DFDS사는 문제가 되어왔던 로테르담의 Maasvlakte Ro-Ro 터미널을 Rhénus Logistics사에 1억 8,200만 DKK¹⁾(약 3,460만US\$)에 매각하기로 함
- 이번 매각은 2010년 7월 DFDS사가 북해 페리운영사인 Norfolkline사를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번 매각으로 DFDS사는 약 4,500만 DKK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 2011년 연초에 Rotterdam과 Immingham간 Ro-Ro노선이 DFDS사의 Maasvlakte 터미널에서 로테르담 도심에 위치한 Vlaardingen 터미널로 변경됨으로 Vlaardingen 터미널의 혼재(Consolidation) 화물 운송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왔음
- DFDS사 대표는 네덜란드와 영국 양측 모두 북해의 혼재서비스는 회사의 통합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매각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인수한 Norfolkline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DFDS(Det Forenede Dampskibs- Selskab)사는 1866년 설립된 북유럽 최대 해운 및 물류서비스 업체로 30개 항로에 60척의 화물선 및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개국에 5,000명의 직원이 두고 있음. 본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함
- DFDS사는 2002년 Maasvlakte 항만터미널의 운영권을 획득하였고 2003년부터 터미널 운영해왔음

<Rotterdam 위치>



<Maasvlakte, Vlaardingen 터미널위치>



자료: www.dfdsgroup.com, 2011.06.21. / www.cargosystems.net, 2011.06.23.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1) Danish Krone의 약자로 덴마크의 화폐단위임. 1DKK=0.1924US\$ 유럽중앙은행 5월평균.

□ 라틴아메리카 11개국 교통부 장관회의 개최

-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라틴아메리카 11개국의 교통부장관들이 모인 남미 지역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포럼(FTS: Foro de Transporte Sostenible para América Latina)이 처음으로 개최됨
- 이 포럼은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UNCRD(UN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와 콜롬비아 교통부 장관이 공동주관하였고 “중남미 지역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지역 운송시스템 개발을 위한 일관된 공공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됨
- 이 포럼(FTS)은 주로 남미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정책의 구상, 지역 환경오염 수준, 여객운송과 화물 운송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음
- FTS전문가 그룹에서는 i)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물류시스템의 진흥 ii) FTS참여국의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물류경험의 공유 iii) 필요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준비의 3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 졌음
- 특히 콜롬비아 교통부장관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5%수준으로 감축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운송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는 의견, 운송 관련 현안에 공동의 협력과 참여노력의 필요성 및 교통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으며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한 경제적비용에 대해 경고의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통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건강위험을 가져오며 건설과 도로관리의 높은 경제적비용을 우려하는 연설도 있었음
- 이번 남미 지역 첫 번째 교통포럼의 결과로 11개국 참가자들은 보고타선언을 채택함
- * UNCRD는 일본 환경성의 지원으로 2004년 처음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을 주제로 운송포럼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친환경적인 성장과 탄소배출의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하며 환경적인 운송 진흥”이라는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음

자료: www.uncrdlac.org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